

# 광주 유희가, 할로윈발 감염 '위태위태'

### 클럽·주점 '불야성'...북새통 속 방역 긴장감 실종 '노마스크' 대화·흡연에 '밀접촉' 춤 삼매경 '아찔' 방역 점검도 형식적 확인에 그쳐 실효성 의구심

"거리 두기를 아무리 안내해도 손님들이 잘 응하지 않아요."

'할러윈 데이'를 맞은 지난달 31일 밤 광주 서구 상무지구 일대는 현란한 간판 조명 사이로 수백명의 인파가 북적였다.

대부분 일행과 함께 온기종기 모여 있어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위기감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인기 영화·애니메이션 속 캐릭터를 본따거나 특정 직업 복장 등으로 한껏 멋을 낸 일부 시민들은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아예 쓰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었다.

주변에 위치한 클럽 7곳 주변에는 본격적인 영업 개시와 함께 긴 줄이 늘어섰다.

출입구에선 관계자들이 휴대전화 QR코드 등 출입명부 작성, 체온 측정을 안내하기 바빴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용객들은 일행과 기념 촬영을 하거나 대화를 하느라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비좁은 출입구를 오가는 이용객들이 뒤섞였고 대형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요란한 음악 소리에 맞춰 서로 손을 맞잡고 춤을 추는 경우도 눈에 띄었다.

클럽을 찾은 이모(23)씨는 "코로나19가 1단계로 완화된 만큼,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클럽 내부도 객석이 간격을 유지하고 있

고 소독도 주기적으로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모(20·여)씨는 "성인이 된 뒤 처음 맞는 할러윈인데, 친구들과 추억을 만들고자 나왔다"며 들뜬 표정을 지었다.

유명세를 탄 실내포차·감성주점 주변에는 긴 대기줄이 늘어섰지만 거리 두기는 지켜지지 않았다.

자정 무렵이 되자 인파가 절정을 이뤘다. 거리 곳곳은 코로나19 감염 위기가 확산되기 전의 활기를 되찾은 듯했다.

한 클럽 관계자는 "방역 수칙을 안내방송·전광판 등을 통해 이용객들에게 알리고 있다"면서도 "댄스 타임 때 간격 유지를 권유하고 있지만, 슬그머니 서로 밀착해 춤을 추는 경우가 많다. 솔직히 통제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출입구 주변에서 입장을 기다리는 이용객들을 향해 간격 유지를 강조하면, '기분 나쁘다'며 근처 다른 클럽으로 자리를 옮겨 난처하다"고 털어놨다.

또다른 클럽은 마스크를 구입, 이용객들에게 무료로 나눠줬지만 무용지물이었다. 대부분은 마스크를 벗고 술·안주를 즐기다, 춤을 추고 대화를 나눴다.

서구 보건위생과·경찰 등 합동점검반 10여 명은 할러윈 데이 기간 중 감



염 확산 우려가 높은 클럽·유희주점·술집 등지를 돌며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동안 점검이 이뤄졌지만, 출입명부 작성·실내 거리 두기 유지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완화로 의무 방역 수칙이 크게 줄었다는 설명이었다.

"영업에 지장이 있다"며 고충을 토로하는 업주들의 사정을 고려해 실내 점검은 최소 인원이 투입됐다.

방역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모양새였다.

실제 몇몇 클럽에선 합동 점검반이 방문하자, 그때서야 다닥다닥 붙어서서 입장을 기다리던 손님들을 향해 "간격 벌려주세요. 거리 두기 유지해요"라고 외치기도 했다.

입구 앞에 놓인 손소독제는 있으나 마나였다. 한 클럽 출입구를 1시간 사이 오간 이용객 60여 명 중 단 1명도 손소독제는 이용하지 않았다.

날이 바뀌고 점검반이 철수한 직후인 1일 오전 1시께 옥외전광판을 통해 전달되는 모 클럽 내 영상에는 발 디

딛 틈 없는 실내가 비춰졌다.

현란한 조명과 음악 소리에 맞춰 거의 모든 이용객이 마스크를 벗은 채 춤을 추다. 주변 편의점을 오가는 클럽 이용객들 대부분이 마스크가 아예 없거나 의무 주머니 속에 넣은 경우가 많았다.

방역점검반 한 관계자는 "유희주점·일반음식점 업종에 대한 주무관리 부처인 위생과가 점검에 나서고 있다. 방역 수칙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감염병관리과 직원이 아니다보니 한계는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업주들도 고민이 큰 것 같다. 행여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관련 업종의 영업을 전면 중단되는 만큼, 방역에 각별히 신경쓰는 것 같다"면서도 "술과 분위기에 취한 이용객들의 방역 협조가 아쉬운 상황인 것 같다"고 했다.

한편, 광주시는 할러윈 데이 관련 방역 수칙으로 ▲짧은 시간 머무르기 ▲올바른 마스크 착용 ▲2m 거리두기 등을 당부했다. 지역 코로나19 누적 환자는 514명이다.

기동취재본부

## 광주서 승용차와 충돌한 50대 오토바이 운전자 숨져

광주에서 승용차와 충돌한 5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다. 지난달 30일 낮 12시24분께 광주 북구 연제동 신용교차로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와 충돌한 뒤 교통섬과 현수막 거치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승용차 운전자는 20대 중반 남성으로, '음주 측정 결과 음주 사실은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각각 직진하다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면허 없는 직원에 방사선 촬영 지시한 의사 벌금형

의료 기사 면허가 없는 직원에게 방사선 촬영을 지시한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의료 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62)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광주 모 의원 원장인 A씨는 지난 5월 23일 자신의 병원 방사선실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B씨에게 환자의 손을 방사선(X-ray) 촬영하게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누군든지 의료 기사가 아니면 의료 기사 등의 업무를 할 수 없다. A씨는 B씨에게 방사선 촬영을 하도록 지시해 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 여수 관공선부두 정박 어선에서 불...1명 화상

전남 여수 관공선부두에 정박해 있던 어선에서 불이 나 1명이 다쳤다.

1일 오전 7시께 여수시 신월동 관공선부두에 정박해있던 1.9급 어선에서 불이 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 39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선주 A(48)씨가 얼굴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인근에 있던 다른 어선 4척에 불이 옮겨 붙어 타거나 그을렸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 무안서 주거용 컨테이너 화재...50대 숨져

1일 오전 7시30분께 전남 무안군 무안읍 한 주거용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23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컨테이너에 거주하던 A(54)씨가 입구 쪽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또 컨테이너 16.5㎡가 모두 탔다.

A씨는 평소 지병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A씨가 연기에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모텔서 흥기 들고 금품 훔치려던 60대 음독 뒤 검거

투숙객이 자고 있던 숙박업소 객실에 침입했다가 달아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투숙객이 묵고 있던 모텔 객실에 흥기를 들고 침입,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준강도)로 A(62)씨를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5시50분께 광주 서구 농성동 한 모텔 내 객실에 흥기를 들고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미리 준비한 흥기를 들고 숙박업소 내 문이 열린 객실에 무단 침입했으나, 잠에서 깬 투숙객과 마주치자마자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전북 지역으로 달아난 정황을 포착, 탐문 수사를 벌여 붙잡았다.

검거 당시 A씨는 음독 상태여서 곧바로 병원 응급실로 옮겨 치료를 받았다.

## '왜 고집 부려' 바나나 먹던 아동에 주먹질한 교사 징유

### "사건 직후 퇴사 자숙·초범인 점 등 고려"

'바나나 껍질을 벗겨주겠다는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 등으로 원아들을 때린 전직 어린이집 교사가 징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 복지 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 학대 가중 처벌)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징

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 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3시6분께 자신이 근무하던 광주 광산구 모 어린이집에서 간식을 먹던 두

살매기 원아의 머리를 2차례 때리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원아들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바나나 껍질을 벗겨주려 했으나 원아가 혼자 먹겠다고 고집을 부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질한 혐의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교사로서 자신의 보호·감독 아래에 있는 아동들에 대해 신체·정서적 학대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아동들의 부모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부모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A씨가 사건 발생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퇴사해 자숙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유나 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junsol@junsol.com